

전남도, 미래 먹거리산업 국비 대거 확보

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1천853억원 반영
신규 사업 및 미래 신성장산업·주력산업 육성사업 포함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략산업 분야 사업이 2022년 정부예산안에 대거 반영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전략산업 분야 국비 1천853억 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등 신규사업 14건을 포함해 미래 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 육성사업 63건이 포함됐다.

모더나,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반 기술인 m-RNA를 활용한 'm-RNA 백신

실증지원 기반 구축' 14억 원을 포함해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 26억 원 등이 신규 반영돼 K-글로벌 백신 허브 조성에 속도를 내게 됐다.

암·치매 등 난치성 질환 면역치료제 개발의 국가 컨트롤타워인 '국가면역치료 플랫폼 구축' 103억 원, 백신 개발 컨설팅과 임상시험, 품질검사 등 백신 제품화 지원을 위해 구축 중인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컨설팅' 96억 원 등이 계속사업으로 반영, 내년 시설 개관이 차질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나주 에너지밸리 강소연구개발 특구 운영' 40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 사업' 10억 원 등을 통해 에너지, ICT 등 첨단산업 R&D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 자원 순환경제를 활성화할 '에너지저장 공정축매 재자원화 기술개발 및 실증' 33억 원 등이 신규 반영돼 온실가스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교통수단인 드론-항공 분야에선 '미래형 플라잉카 핵심부품육성 기반 구축' 20억 원, 'eVTOL 자

율비행 핵심기술 및 비행안전성 운용성 시험평가' 58억 원 등을 통해 차세대 드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e-모빌리티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초소형 e-모빌리티 부품 시생산 지원기반구축' 53억 원 등으로 e-모빌리티 지역특화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 및 양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의 주력산업인 조선 분야는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업 다각화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친환경선박 극저온 단열시스템 국산화 실증기반 구축' 68억 원, '조선해양 친환경 특화기술 공유플랫폼 사업' 26억 원 등이 반영됐다.

친환경선박과 관련해 '수소추진 레이저선 및 기자재 개발' 19억 원 등이 신규 포함돼 전남 친환경선박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밖에 철강석유화학 산업과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을 위한 '수송기공용 마그네슘 소재 실증기반 조성' 18억 원,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147억 원 등이 반영돼 산업 고도화와 친환경 스마트산단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

주순선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전략산업 분야 국비 확보를 통해 '정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 불법광고 특별정비 실시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들을 특별정비한다.

이번 특별정비는 광주시와 자치구 10개 반 28명의 정비반을 구성해 6일부터 17일까지 버스터미널, 철도역 등 교통관문, 주요 간선도로, 전통시장 주변 등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중점 정비대상은 ▲주요 관문과 간선도로, 역과 터미널 주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가로변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벽보 ▲유형 밀집지역의 퇴폐적인 불법전단지 ▲보도 등에 설치된 불법간판 및 풍선광고 등이다.

공동주택 등의 분양 현수막의 경우 자치구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심야 시간대, 휴일 등을 이용해 게릴라식으로 게시되고 있는 실정으로 정비반이 현수막을 철거하면 다시 게시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다량으로 게시되는 공동주택 분양현수막에 기재된 연락처에 불법광고킬러시스템을 이용한 경고전화를 반복적으로 발신하고, 과태료 부과와 병행해 고발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동범 시 도시경관과장은 "불법광고물은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로 깨끗한 광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관 기자

광주지역 김밥 식중독원인균 '안전'

즉석 조리·판매업소 66곳 수거검사 결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우려가 큰 지난 8월 즉석 섭취 식품인 김밥류를 수거해 주요 식중독원인균을 검사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타지역에서 즉석 섭취 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시 식품안전과, 5개 자치구와 함께 배달음식점(김밥 등 분식) 위생점검과 수거검사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과 연계한 '김밥' 집중 모니터링 검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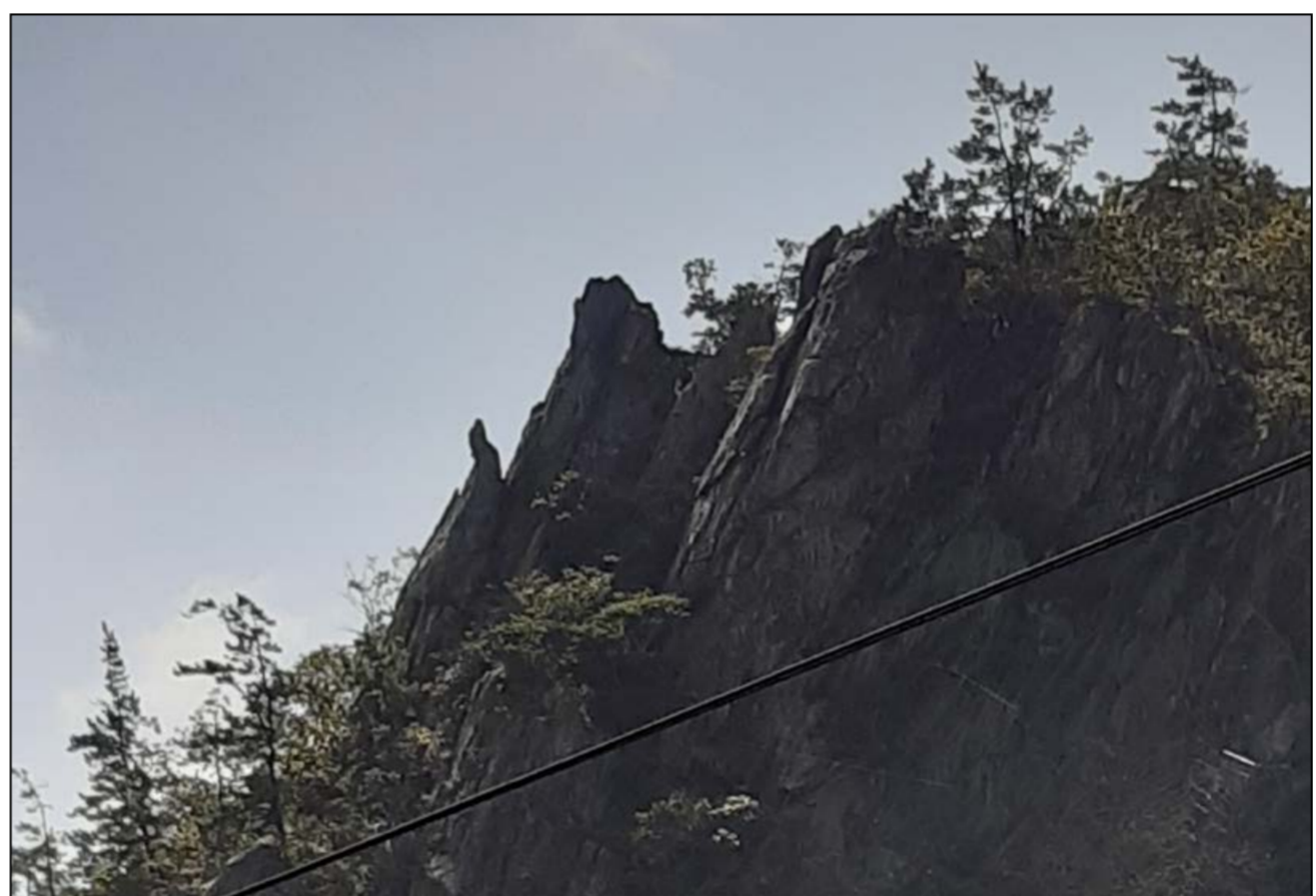
검사 대상은 광주지역 5개 자치구 내 즉석 조리·판매업소 66곳에서 수거한 김밥 71건으로, 식중독원인균을 검사한 결과, 71건 김밥에서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중독 환자는 기온과 습도가 높은 8-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므로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즉석 섭취 식품인 김밥을 팔 때 사용하는 김밥과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해 음식 재료와 도마, 칼 등 조리기구·용기 간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달걀 깨기, 생고기 썰기 등 식재료 취급 후에는 반드시 세정제로 손을 씻고, 장갑을 착용하고 조리 중이었다면 장갑을 교체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업소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도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세척·소독하기, 조리기구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윤규진 기자



강진군 '세종대왕 바위' 우리고장의 자랑거리

강진읍에서 완도방향 도암면으로 약11km 내려가면 소금강산이라 불리고있는 절경이 아름다운 석문산에 석문공원이 있다. 공원 남로 입구에는 용문사가 있고 석문산 중턱에는 등산객들이 잠시나마 몸을 식히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팔각정이 자리잡고 있다. 남서로 뻗어있는 산줄기 사이 도로위로는 구름다리가 웅장하게 이어져 있어 줄지어 건너다보면 석산의 절경과 물흐르는소리, 협곡의 잔잔한 바람소리 등 소금강산의 매력을 만끽하며 관광객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줄게 하기에 충분하다. 건너편으로 다리를 건너가면 세종대왕 바위가 웅장하게 자리잡고 있어있다. 익선관을 쓰고 인자한 모습으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의 바위이다. 예전부터 세종대왕바위를 보며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에 마음의 평안함을 찾고 할수있어 많이 찾고 있다. /특별취재본부 윤규진 기자

자연과 역사를 품은 시간여행

사계절이 아름다운 화순

세랑지의 봄

연둔리숲정어의 여름

화순적벽의 가을

규봉암의 겨울